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12月1日(月) <2008年> 第671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3202)5398 番
発行人 鄭然元・編集人 朴寿吉
毎月1回1日発行 購読料1部100円
昭和38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Tel.047-495-2555 Fax.047-432-7912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다.”(눅 2:10-11)

2008년聖誕節을 맞이하는 聖徒 여러분과 家庭 위에 큰 기쁨 소식이 充滿하기를 祈禱드립니다.

今年 在日大韓基督教会는 宣敎100周年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感謝드리며 새로운 希望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해였습니다.

지금 世界는 흔들리는 經濟問題로 인하여 엄청난 不安에 빠져 있습니다. 國際信用評價社와 證券會社의 職員들은 이러한 世界金融危機를 몰고 온 自身의 責任을 痛感하면서 “우리는 收入을 올리기 위해 惡魔에게 靈魂을 팔았다”는 表現으로 資金의 運用이 잘못되었음을 告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人들이 經濟的 不安과 걱정, 그리고 切望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主께서 生命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主의 앞에는 기쁨이 充滿하고 主의 우편에는 永遠한 즐거움이 있다.”(시 16:11) 하고 告白했습니다. 東方에서 別을 研究하던 博士들은 神奇한 別을 發見하게 되었습니다. 人類를 救援할 메시아가

誕生할 徵兆였습니니다. 저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 2:10) 그들은 별만 보고도 그들은 기쁨이 充滿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人들을 悲해하고 있습니다. (렘 15:16) 하늘나라 生命冊에 내 이름이 記錄된 것을 기뻐해야 하고 (눅 10:20), 治療하는데도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苦痛을 부리고 인상을 쓸게 아니라 더 웃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27 절에서 예수님께서 “平安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平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世上에 주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니다. 그러므로 에 수 안에 사는 人들은 不安과 두려움, 恐怖에서 벗어나 平和와 安息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님의 人들을 통해 이 矛盾과 슬픔의 歷史를 平和와 기쁨의 歷史로 바꾸기를 願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世上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일의 實現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내용을 외치는 聖誕節이 되기를 바라면서 主님의 祝福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는 人들 중에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聖誕節메시지

큰 기쁨의 소식이

<누가福音 2章 10節~11節>

總會長 鄭然元

美國 國會에서 最初의 原子彈 製造를 監督한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John Robert Oppenheimer) 博士를 招聘해서 이런 質問을 던졌습니다. “博士님은 原子彈을 만드셨는데, 이 原子彈을 平和로다”라는 아름다운 讚頌이 永遠도록 들려지는 기쁨을 이루어 내는 2008년 聖誕節이 되기를 바랍니다.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宣敎協力委員會 開催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宣敎協力委員會 開催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宣敎協力委員會 開催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宣敎協力委員會 開催

在日大韓基督教会總会立 總会神学校

2009年度 学生募集案内

本校は、一般教育を終了した者が、専門語学、聖書神学、歴史神学、組織神学、実践神学、KCCJ神学を含め、牧会神学の六領域の学びを統合的に修めながら、現代の、特に在日同胞社会の多様性に十分対応できる伝道者の養成を目指す神学校です。

- 募集人員：①神大院生(3年課程、及び2年課程)若干名
- 出願資格：①受洗後、1年以上であること。
②在日大韓基督教会の正会員(但し、他教団出身者は要面接)。
③伝道者への召命感があること。
④一般大学卒業生および他神学校卒業生
- 出願期間：2008年12月1日(月)～2009年1月31日(土)
- 提出書類：①入学願書(本校所定の用紙) ②志望理由書(400字5枚) ③履歴書(本校所定の用紙) ④推薦状(所属教会の牧師または代表)

⑤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 ⑥最終学校の成績証明書 ⑦写真2枚
5. 試験：①試験日時：2009年2月17日(火) 午前10時～
②試験会場：總会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TEL 03-3899-9861)
③試験科目：聖書、英語、面接
④受験料：5,000円
⑤合格発表：2009年3月6日(金) 書面にて通知

6. 募集学科
①本科：出願資格参照。但し、在日大韓基督教会の正会員として他の神学校を卒業し、在日大韓基督教会の考試の受験を志願する者は、校長の推薦を得て本校にて1年以上の修学のために入学しなければならない。加入宣教師の場合も同様である。

7. 受講時間：月曜日から金曜日9:00～17:50
※入試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教務まで
(教務 韓聖煥牧師：TEL03-3890-3365、携帯電話080-3355-3890、godlove1953@ybb.ne.jp)



11月15日、豊橋教会礼拝堂において、創立80周年を記念しての音楽伝道集会が開催された。



西部青年会が修養会開催。主題「在日教会史100年を振り返って」のもと、21名の参加のもと、グリンピア三木で開催された。

西部地方教会連合青年会主催の修養会が、9月14、15日、21名の参加のもと、グリンピア三木で開催された。

主題「在日教会史100年を振り返って」のもと、李鍾國長老(神戸東)の講義があった。

「信徒指導者育成コース」開講 生徒募集!

関東地方会では、来年4月より、一般信徒向けの指導者育成コースを開講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楽しく聖書を学び、教会でのリーダーとなっていきたい。

不動産管理
アルカンシェル名駅
李 光 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2-2-27
電話・FAX 052-451-7713
携 帯 090-3578-7571
E-mail: kwangse.lee@nifty.com

豊橋教会がクラシックコンサート 創立80周年を記念して開催

「クラシックコンサート WITTHGOSPELMESSE」と題された集会は、オペラ歌手の李鍾國氏(バリトン)、田辺菜美子氏(ソプラノ)、ヴァイオリン奏者の大竹広治氏、ピアノ奏者の杉浦雅子氏が出演した。

この集会は、今年創立80周年を迎えた豊橋教会の記念事業として企画された。近隣地域の住民や高齢者福祉など社会福祉を通じて知り合った地元の人びとへの伝道を目指して催された。

コンサート第一部と第二部の演奏に約100名の聴衆で満たされた会場は、歓喜に包まれた。

西宮教会 2名の長老を将立

4月20日、西宮教会において、盧鐘來・朱宗中両執事の長老就任式が行われた。

医療法人
おりお心クリニック
院長 金 長 壽
(福岡中央教会 長老)
診療科目: 神経科 精神科 心療内科
精神保健相談 酒害相談
診療所: 〒807-0825 北九州市八幡西区折尾4-2-8
TEL (093) 603-3280
FAX (093) 603-7985
自 宅: 〒813-0003 福岡市東区香住ヶ丘1-14-8
TEL・FAX (092) 672-9410

歴史コラム⑦④ 戦後の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リーダーたち(8) 金元治牧師

李 清 一 (歴史編纂委員会)



写真: 金元治牧師

2008年10月13日に宣教師100周年記念大会が開かれた臨時総会で、丁仁壽・李鍾國氏と共に牧師接手を受けた。同年10月の第8回総会において青年局と婦人局が新設されると、初代総会長としての重責を担っ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同志社大学の神学部在学中に、魚木忠一教授から「将来朝鮮に帰る時、アメリカで学んでから帰るな」と言われた。そのとき、英語を学んでおくのが良いと言われ、毎週一回英語の個人レッスン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金元治牧師が大阪西成教会に伝道師として迎えられ、最初に迎えたのは、教会堂の再建であった。1948年3月に建築委員会を立ち上げ、焼野原であった現在の土地に200坪を借り受ける。そして、その年の12月に会堂が完成し、クリスマス礼拝を新築の教会でさげた。同年の10月に、カナダ長老教会から海外宣教師のA・マンロー総幹事と女性宣教師のL・K・ベルトン総幹事が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視察に来日した際、大阪西成教会を訪問した。そして、教会を訪問した。そして、教会を訪問した。

金元治牧師は、1952年、婦人局長(7年間)と伝道局長(8年間)も歴任して、53年からは、カナダ長老教会からの牧師に就任した。54年には、青年主日の献金の半分が教会青年の運動のためにさげられることとなった。また、主日の献金の半分が教会青年の運動のためにさげられることとなった。また、主日の献金の半分が教会青年の運動のためにさげられることとなっ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金元治牧師は、1922年4月、威鏡北道明川郡に生まれる。父・金先振、母・玄昌明の4男2女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清津にあって生きた。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愛
取締役社長 李 鍾 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TEL. 03-3202-5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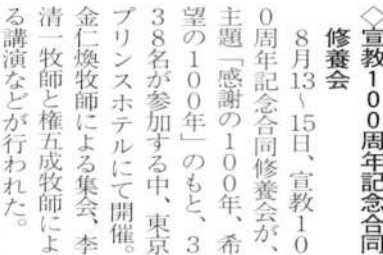


◆東京教会創立100周年記念式典
2月11日、東京教会の創立100周年記念式典が九段会館にて約1200名の参加のもと開催。鄭然元総会長の説教、「和解」などをテーマにした丁讃宇氏のヴァイオリン演奏などが行われた他、「100周年記念文集」が配布された。

◆海外韓人教会教育と牧会協議会
4月2、4日、宣教100周年を記念し、第6回海外韓人教会と牧会協議会をKCCIが主催して開催した。協議会では、金性済牧師やグレン・デビス牧師(PCC元総会長)による講演があったほか、長野・松代大本宮の強制労働跡地への現場訪問を行った。



◆全国女性会四局合同研修会
6月24、25日、全国教会女性連合会四局合同研修会が主題「今、キリストに与えられた関係性を生きる」、副題「世代・ライフスタイル・場所を越える心のつながり」のもとアピカルイン京都にて開催。李禮子氏による講演があった。



◆宣教100周年記念合同修養会
8月13、15日、宣教100周年記念合同修養会が、主題「感謝の100年、希望の100年」のもと、338名が参加する中、東京プリンスホテルにて開催。金仁煥牧師による集会、李清一牧師と権五成牧師による講演などが行われた。



宣教100年、小島の100年

(테살로니가전서 5:18)

2008年の日

宣教100周年標語
2008年の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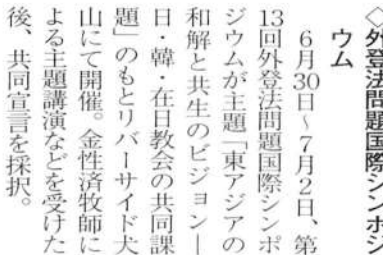


◆外キ協全国集会
1月17、18日、外キ協全国協議会が西南KCCにて開催された。19日には第22回外国人住民基本法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者集会が、主題「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へのメッセージのもと、小倉教会にて開催され、崔善愛氏によるピアノ演奏と証しがあった。

◆宣教会議
4月1日、総会神学校にて宣教100周年記念宣教会議が宣教委員会主催で開催。各委員会委員長からの9つの発題を受け、討議を行った。討議では、新任牧師に対する牧会上の訓練機会増加や隠退牧師者による開拓伝道の可能性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



◆人権シンポジウム
4月20、22日、第14回KCCI人権シンポジウムが関西セミナーハウスにて開催された。主題「宣教100周年を迎えるKCCIと人権」マイノリティ教会としての使命のもと、丹羽雅雄弁護士による講演があったほか、声明文が採択された。



◆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
6月30日、7月2日、第13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が主題「東アジアの和解と共生のビジョン」日・韓・在日教会の共同課題のもとバーサイド犬山にて開催。金性済牧師による主題講演などを受けた後、共同宣言を採択。

◆青年会全国夏期修養会
8月13、16日、青年会全国協議会の夏期修養会が開催された。東京プリンスホテルで行なわれた宣教100周年記念合同修養会に参加した後、二日目から会場を河口湖に移して行われた。朱喜哲代表委員による全協発題や聖書ワークショップなどが行われた。

宣教100周年と教会の未来

宣教10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教会の未来について考え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

宣教100周年と教会の未来

宣教10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教会の未来について考え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

宣教100周年と教会の未来

宣教10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教会の未来について考え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宣教100周年は、教会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であり、同時に未来を展望する機会でもある。